

法藏의 無礙方式

金 夏 雨*

〈目 次〉

- | | |
|----------|----------|
| 1. 序 言 | 4. 交 徹 義 |
| 2. 不 異 義 | 5. 結 言 |
| 3. 中 道 義 | |

1. 序 言

印度의 華嚴經은 大乘經典중 가장 深奧한 佛教思想을 담은 經典가운데 하나다. 이러한 經典을 論·疏로 展開하거나, 華嚴學派를 成立시키지 못한데서, 印度佛教의 思想史의 傳承에 그 位置가 밝혀지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中國의 華嚴系는 華嚴經에 立脚하여 이미 이루어진 中國佛教思想을 資用하고, 學派思想을 形成했다. 印度의 中觀思想이 中國에 受容되어 三論의 獨創의인 特色을 보이는것 처럼, 華嚴宗도 多樣한 印·中 佛教思想을 包攝·融會하여 그 獨自의인 모습을 이루었다. 印度學術佛教의 全盛期에 唯識·中觀學派는 그 絶頂에 이를 만큼 展開되었으나, 華嚴系는 그 命脈조차 찾기 어려운 狀況이 었다. 이러한 空白이 中國華嚴系로 하여금 餘他의 中國學派佛教보다 더 폭넓고 새로운 思想展開를 가지게 했음직 하다.

華嚴宗은 杜順·智嚴을 거쳐 法藏(賢首 643-712)에 이르러, 印度에서 일찌기 이룰수 없던 華嚴思想의 學術的體系를 보이게 된다. 法藏의

*哲學科教授

華嚴體系는 그 위의 華嚴系(中國의)에 많은 影響을 주는 것이다. 法藏의 華嚴體系는 性相融會思想을 展開한데 그의 獨創的인 特色을 보인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性相融會思想에서 그가 展開하는 轉悟方式을 밝히려는데 拙稿의 內容이 集約된다. 그의 轉悟方式을 無礙의 轉悟方式으로 假定하고, 그 方式이 不異·中道·交徹義에 基한 轉悟方式임을 提示하려는 것이다. 되도록 좁은 범위에서 그 一面이라도 接近하려는 試圖이지만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까 두렵다.

2. 不異義

法藏의 <華嚴一乘教義分齊章> 卷第四에 不異義가 提示된다. 卽, 「又彼有情聞說依他畢竟性空. 不達彼是不異有之空故. 卽執以爲如謂之空. 是故護法等. 破彼謂空以存幻有. 幻有立故方乃得彼不異有之空. 以若有滅非眞空故. 是故爲成空故破於空也. 以色卽是空清辯義立. 空卽是色護法義存. 二義窮融學體全攝. 若無後代論師以二理交徹全體相奪. 無由得顯甚深緣起依他性法. 是故相破返相成也.」¹⁾

彼の有情이 依他는 畢竟性空이라 說함을 듣고, 彼는 有에 不異한 空에 達하지 못한다. 故로 곧 執著하므로써 如謂의 空이 된다. 이런 故로 護法등은 彼の 謂空을 破하므로써 幻有를 있게 한다. 幻有가 서는 故로 必야흐로 곧 彼の 有에 不異한 空을 얻는다. 만약 有가 滅하면 眞空이 아닌 緣故이다. 그러므로 空을 세우기 위한 緣故로 空을 破하는 것이다. 色卽是空으로써 清辯의 뜻을 세운다. 空卽是色이라면 護法의 뜻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二義가 窮融해서 學體全攝한다. 만약 後代의 論師가 二理로써 交徹하고 全體相奪함이 없다면, 甚深한 緣起로서 依他性의 法을 顯示할 緣由가 없다. 이런 故로 相破하면서 返하여 相成하는 것이

!) 大正藏四五, 501 頁上~中.

다.

「如謂之空」·「謂空」의 如謂·謂義는 말과 같이 取著하고²⁾, 戲論을 制御하지 못하는 輪廻의인 言說을 말한다. 곧 共相을 벗어나는 轉悟가 아니라 分別語이며, 共相의 滯累를 벗어나지 못하는 相說인 것이다. 「執以爲如謂之空」이라 함에, 執著내지 有所得心이 如謂의 방식에 앞서는 것이다. 즉 如謂내지 如言의 言說자체에 執著이 있는 것이 아니라, 迷執의 主觀이 如謂의 相說을 所有하는 것이다. 如謂의 相說에 左右되는 輪廻現象에서는 言說을 制御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言說은 '說者의 意圖에 따라 制御된다'³⁾는 自悟를 忘失한데서 如謂의 分別을 일으키는 것이다. 言說을 制御할 수 있는 自悟를 통하여 如謂의 共相의 歸屬을 벗어나고, 緣起의 眞理를 발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彼の 謂空을 破하므로써 幻有를 있게 함은 謂空에 대한 또 하나의 見내지 對立되는 立場의 幻有를 있게 함이 아닌 것이다. 謂空과 그와 對立되는 見 모두를 遠離내지 넘어서는 悟得概念이 幻有인 것이다. 그러므로 幻有가 成立하는 故로 不異有之空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幻有의 成立義는 不異有之空을 可能하게 하는 것이다. 不異義는 幻有의 成立義가 提示하는 것과 같이 兩邊(有邊과 空邊)을 넘어서는 것이다. 따라서 如謂내지 如言의 一·異를 넘어 서며, 色即是空·空即是色의 相即義를 提示한다.

法藏의 <十二門論宗致義記>卷上에 不異義가 二諦의 存立을 可能하게 한다고 한다. 卽,

2) 元曉는 執著을 떠나서 說하면 맞지않는 것이 없고, 執著이 있어 말과같이 取執하면 實相에 接近하지 못한다고 한다. 卽, 「離著而說無不當故, 若有著者如言而取無不破壞故非實實.」(<元曉大師全集>, 72 項, 趙明基編, 寶蓮閣, 1979 年) 또한 말과 같이 取하면 失을 招來하고, 서로 淨論하며 佛意를 잃는다고 한다. 卽, 「如言取二說皆失, 互相靜失佛意故.」(<元曉大師全集>, 31 項).

3) 月稱은 「말은 說者를 不自由롭게 하지 못할뿐 아니라 說者의 意圖에 의해 制御된다」(na hi śabdāḥ dāṇḍapāsikā iva vaktāramasvatantṛayanti, kim tarhiṃ satyāṃ śaktau vakturvivakṣāmanuvidhiyante. MV. p.24)고 한다.

「問。若爾。應壞二諦。以因果即空故。失幻有。壞俗諦。空即因果故。失真空。壞眞諦。答正由不異。二諦得存。若不爾者。則失二諦。何者。謂異空之因果。非幻法故。失於俗諦。異因果之空。非真空故。失於眞諦。是故二諦得存。由於不異。不異則是中道平等。是則由中道而有二諦。則是中道二諦也。」⁴⁾

因果가 空이라는 同一律에 묶인다면, 幻有를 亡失하고, 俗諦를 破壞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空이 因果라는 同一律에 따르면, 眞空을 喪失하고, 眞諦를 破壞하는 것이다. 또 差異律에 묶여도 眞俗二諦를 잃게 되는 것이다. 즉 空과 다른 因果라면, 幻法이 아닌 故로 俗諦를 喪失하게 되는 것이다. 因果와 다른 空이라면, 眞空이 아닌 故로 眞諦를 亡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律 어느 邊에 묶여도 幻有·眞空내지 俗·眞兩諦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不異義는 異因果之空과 異空之因果를 넘어서 幻有와 眞空내지 俗·眞二諦를 成立시키는 轉悟脈絡을 뜻한다. 不異義는 不一(不即) 不異로서 中道義⁵⁾를 나타낸다. 「二諦得存, 由於不異」의 不異義⁶⁾는 「由中道而有二諦」의 中道義와 相應한다. 그러므로 不異가 곧 中道平等인 것이다.

<十二門論宗致義記>卷上에 不異의 相即·中道義를 提示한다. 即, 「不異義者. 以若不緣生. 不無性故. 謂緣有者. 顯不自有. 不自有者. 則是無性. 又無自性者. 顯非自有. 非自有者. 則是緣有. 是故經云. 色即是空. 空即是色. 論云. 智障極盲闇. 謂眞俗別執. 此之謂也. 亦不得

4) 大正藏四二, 216頁上.

5) <中觀論疏>, 卷第二本: 「以俗諦故非一. 以眞諦故不異. 俗故無一難異而一. 眞故無異難一而異. 難異而一. 故不滯於異. 難一而異. 故不著於一. 不一不異名爲中道.」(大正藏四二, 26頁中) 「以空有爲世諦. 世諦即是無差別差別. 故名一異. 以有空爲眞諦. 眞諦是差別無差別. 故名異一. 異一即非一. 一異即非異. 非異非一名爲中道.」(同藏四二, 26頁下).

6) 宗密의 <注華嚴法界觀門>에, 即(一·不即)에 묶인다면 眞·俗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 即, 「空若即色者. 聖應同凡見妄色. 凡應同聖見眞空. 又應無二諦. 不即色. 若不即者. 見色外空. 無由成於聖智. 又應凡聖永別. 聖不從凡得故. ……亦不可言即空. 色若即空者. 凡迷見色. 應同聖智見空. 又亦失二諦. 不即空. 若不即空者. 凡夫見色應不迷. 又凡夫所見色. 長隔眞空. 應永不成聖.」(大正藏四五, 686頁下).

以性空故，而不許緣生。以無緣生，空不立故。論云，有爲法空，以從緣生故。又此是眞空，非斷空故。若待滅緣生方爲空者，是則情中惡取空也。又亦不得許緣有故，違害眞空。以若不空，非是緣有，自若有者，非緣生故。又不異有之空，方爲眞空，不異空之有，方是幻有，是故此二不二，故無異也。」⁷⁾

不異의 意味를 밝히는 것이다. 緣生이 아니라면, 無性이 아닌 것이다. 곧 緣生은 無自性내지 無性을 뜻한다. 緣有라고 말하는 것은 不自有를 顯示하는 것이고, 不自有란것은 바로 無性인 것이다. 결국 無性은 緣生, 緣有(假有)를 말한다. 또한 無自性이란 것은 非自有를 顯示하고 非自有란것은 바로 緣有를 뜻한다. 無性내지 無自性的 空과 緣生내지 緣有的 假有는 不異의 相即義를 顯示하는 것이다. 不異의 相即義는 空有的 眞俗二諦를 成立하게 하고, 그 眞俗二諦의 絶義⁸⁾가 不異義를 提示한다. 色即是空, 空即是色은 眞俗의 別執을 넘어서신 不異의 相即을 意味한다. 色(緣生·緣有)이 곧 空(非自有·無自性)이고, 空이 곧 色이라 함은 是謂의 見이 아니다. 곧 不異의 相即義인 것이다. 不異의 相即義에 緣有한 二諦의 俱絶義는 別執을 不受하며, 中道를 實現하는 뜻이다. 眞俗의 一異邊에 執著하게 되면, 性空도 얻지 못하고 緣生도 許容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遮照의 悟道方式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緣生을 許容하는데서 空이 成立하므로 斷空이 아닌 眞空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有·空의 是謂에 묶인 共相의 滯累에 빠지지 않고, 斷空偏有를 넘어서 自相의 方向을 열어 가는 방식이 提示된다. 緣生의 許와 空의 立은 바로 自相의 方向 곧 悟覺의 길을 斷切하지 않는 意味로 提示된다. 그렇지 않고 緣生의 滅을 기다려서 空이 되는 것이라면, 情

7) 大正藏四二, 215頁下.

8) <中觀論疏>卷第二本에 二諦의 絶性絶假를 밝힌다. 卽, 「問世諦絶性, 眞諦絶假. 舍明二諦治何偏耶. 答但明世諦絶性不明眞諦絶假, 卽名爲偏. 但明眞諦絶假不明世諦絶性在義亦遍. 以具明二諦俱絶假實卽義始圖正. 故名中道.」(大正藏四二, 26頁中).

중의 惡取空에 이른다. 斷空이므로 緣有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緣有를 許容할 수 없는 故로 眞空을 違害하는 것이다. 또한 空이 아니라면 이는 緣有가 아니다. 스스로 有한것 곧 自有라면 緣生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有에 不異한 空이 眞空이 되고, 空에 不異한 有가 幻有인 것이다. 眞空과 幻有는 不異의 相即義에 의해 成立되는 것이다. 이는 共相의인 滯累를 벗어나고 自相의 方向을 여는 悟道의 意味를 顯示한다. 그러므로 二(眞空과 幻有)는 不二인 故로 無異라 한다. 不二·無二는 不異의 相即·中道義를 提示한다.

이러한 不異의 相即·中道義는 智顗(538-597)의 <妙法蓮華經玄義> 卷第一上에서도 明示된다. 卽,

「金剛藏說佛甚微智辭異意同。其辭曰。空有不二不異不盡。空非斷無故言空有。有即是空空即是。故言不二。非離空有外別有中道。故言不異。遍一處故言不盡。此亦與龍樹意同。中論云。因緣所生法即空即假即中。因緣所生法即空者。此非斷無也。即假者不二也。即中者不異也。因緣所生法者。卽遍一切處也。」⁹⁾

金剛藏의 說은 佛의 甚微한 智가 그 辭는 다르나 그 意는 같다고 한다. 空有는 不二, 不異, 不盡이라 한다. 空은 斷無가 아닌 故로 空有라고 말한다. 곧 有를 許하면서 空을 세우는 意味이고, 偏有·斷空을 넘어서는 空有義를 밝히는 것이다. 有가 곧 空이고, 空이 곧 有이므로 不二라 말한다. 空·有의 不異相即義를 不二로서 나타낸다. 空有밖에 따로 中道가 있지 않으므로 不異라고 말한다. 空有의 不異義가 中道임을 나타낸다. 이는 「二諦得存。由於不異。不異則是中道平等」¹⁰⁾ 義와 相應하는 것이다. 또 一切處를 普遍하는 故로 不盡이라 말한다. 곧 因緣의 無盡한 道理를 나타낸다. 이러한 思想은 龍樹의 「因緣所生法(緣

9) 大正藏三三, 682頁下.

10) 註(4).

起) 即空即假即中」(〈中論〉第二十四品第 18 偈)¹¹⁾ 義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龍樹의 뜻에는 二諦밖에 天台의 三諦說이 없는 것이다. 緣起의 存在로서 因緣所生法을 即空, 即假, 即中이란 概念으로 表言하지 않은 것이다. 智顓은 即空, 即假, 即中の 轉悟概念을 創案하여 龍樹의 中觀思想을 叙說한다. 즉 因緣所生法이 即空이란것은 바로 斷無가 아님을 뜻한다. 即假란것은 不二이고, 即中이란것은 不異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因緣所生法이란것은 一切處를 普遍하는 것이다. 即假者를 上記한 〈中論〉의 偈頌에서 볼때, 假名義로 理解할 수 있다. 그러면 三論에서 展開된 假名, 假有無등의 假義와 다르지 않는 것이다. 假名내지 假義가 바로 不二인 것이다. 또한 即中者역시 中道義로 봄에 中道가 곧 不異義인 것이다. 「非離空有外別有中道, 故言不異」義와 「即中者不異」義는 不異의 相即·中道義를 顯示하는 것이다. 또한 「有即是空空即是有, 故言不二」¹²⁾ 義와 「即假者不二」義는 「不異有之空·方爲眞空. 不異空之有, 方是幻有. 是故此二不二, 故無異」¹³⁾ 義와 相應하는 것이다. 不異義는 相即·中道義이니, 八不(不生不滅, 不常不斷·不一不異·不來不出)의 絶義를 顯示하는 것이다.

不異는 有所得心·迷執見을 不受하고 超脫하는 絶義를 顯示한다. 幻有 또한 不異의 絶義를 그 脈絡으로 顯示한다. 그러므로 〈十二門論宗致義記〉卷上에, 不異空之有로서의 幻有는 그 單就에서 四句皆絶·無寄中道義를 顯示한다. 即,

「問. 幻有是有耶. 答. 不也. 是幻有必不有故. 是無耶. 不也. 以有

11) yaḥ pratītyasamutpādaḥ śūnyatām tām pracakṣmahe, sā prajñāptirupādāya pratipatsaiva madhyamā. (MK. XXIV, 18) 「衆因緣生法 我說即是空 亦爲是假名 亦是中道義」(羅什譯)에 明示되지 않은 「即空即假即中義는 天台의 三諦說을 提示한다.

12) 〈二諦義〉卷下에 空有의 相即·不二義가 明示된다. 即, 「今只有即是空. 空即是有. 有即空. 空不壞有. 空即有. 有不動空. 故得並也. 二者不二二橫並. 二不二不二. 只二即不二. 只不二即二. 無二異不二. 無不二異二. 故不壞假名. 說諸法實相. 不動等覺. 建立諸法.」(大正藏四五, 110 頁下).

13) 註 7).

既不有，無可無故，又不礙幻事，非斷滅故，是亦有亦無耶，不也，是亦有亦無耶，不也，以二義形奪，俱不存故，非有非無耶，不也，以無有無，無所待故，具此二義，是幻有故，是故單就幻有，四句皆絕，亦無寄中道也。」¹⁴⁾

幻有는 有인가? 아니다. 幻有는 반드시 不有인 故로, 無인가? 아니다. 有가 이미 不有임에 無라 할것이 없는 緣故다. 또 幻事에 不礙함에 斷滅이 아닌 緣故다. 그렇다면 亦有亦無인가? 아니다. 二義의 形을 奪함으로써 함께 (亦有亦無) 不存하는 緣故다. 非有非無인가? 아니다. 有·無가 없으므로 待할바가 없는 緣故다. 곧 相待가 사라지므로 相待有에 基한 非有非無의 是謂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幻有를 單就하면 四句모두를 超絶하는 것이고, 또한 寄依할바 없는 無寄中道를 顯示하는 것이다. 中과 邊에 不著하며¹⁵⁾ 言說思慮에 寄托하지 않는 無寄中道義가 幻有義에서 顯示되는 것이다.

三論에 있어서도 假名(假有·假無·假俗·假眞)은 그 單就으로써 四句를 超絶하는 것이다.¹⁶⁾ <淨名玄論>卷第一에 假有의 絶四句義가 明示된다. 即,

「明一句絶，如一假有則絶四句，所以然者，假有不可定有，假有不可定無，假有不可定亦有亦無，假有不可定非有非無，故此假有絶四句，問假有何故不可定有，答，既言假有，豈可定有，若是定有，便是定性，何名假有，或者云，假有若不可言有，假有便是無，是故今明，既稱假有，寧是定無，但言假有，云何得亦有亦無，唯稱假有，寧言非有非無，故此

14) 大正藏四二，216頁下 - 217頁上.

15) 「不著中，不著邊，方爲無寄中道。」(<十二門論宗致義記>卷上：大正藏四二，216頁下).

16) 「今破有故言不有，破無故言不無，所以明，佛說假有假無爲世諦，此假有不名有，此假無不名無，問此假有何物有，明此假有不名實有，假無亦是不名實無，是即此假有假無名爲世諦，所以其不名實有實無，故言絶，而此不有，爲成假有，不無爲成假無，此即是不絶假義，若言二諦俱絶者，眞諦絶四句，離百非，世諦亦絶四句離百非，然此義從來所無，唯今家有也，言二諦皆絶四句離百非者，俗不定俗，俗名眞俗，眞不定眞，眞名俗眞，眞俗假俗，俗眞假眞，假俗即百是不能是，百非不能非，假眞亦離。」(<大乘玄論>卷第一：大正藏四五，17頁中).

假有絶乎四句.]¹⁷⁾

一句의 絶義는 一假有의 絶四句義로써 밝혀진다. 즉, 假有는 定有일 수 없고, 또한 定無일 수 없는 것이다. 第一句의 定有와 第二句의 定無를 超絶하는 假有를 表明한다. 假有는 定亦有亦無일 수 없다 하므로 第三句를 絶離하는 것이다. 끝으로 假有는 定非有非無일 수 없다 하여 第四句를 遠離하는 것이다. 假有가 어찌하여 定有일 수 없는가? 이미 假有라고 말한 것인데 어찌 定有일 수 있겠는가. 만약 定有이라면, 곧 定性을 말하는 것이다. 或者는 말하기를, 假有를 有라고 말할 수 없다면, 그 假有는 바로 無라고 한다. 假有를 有無兩見으로 分別하여 是謂하는 것이니, 有無兩邊에 歸屬된 有所得心이 提示된다. 그러므로 三論에서 아래와 같이 밝힌다. 이미 假有라 稱한 것인데, 어찌 定無이 있겠는가. 但只 假有라고 한 것인데, 어찌하여 亦有亦無를 얻겠는가. 오직 假有라 稱한 것인데, 어찌 非有非無라고 말하겠는가. 그러므로 假有는 四句를 超絶하는 것이다. 既稱·但言·唯稱은 有所得心의 輪廻의 相說을 絶離하는 淸淨의 宣言이다. 곧 不增不減의 淸淨한 宣言이고, 反對概念이나 矛盾概念등을 受著하는 表言이 아닌 것이다.

上記한 內容에서 幻有義는 三論의 假有(假名)義와 相應함이 提示된다. 不異義는 相即·中道·無礙의 脈絡義로 보여 진다.

3. 中道義

法藏의 <十二門論宗致義記>卷上에 究竟의 破義를 든다. 即,

「立破無礙者。以情執非理。當體即空。致使無破之破。破即無破。若執有破。還同所破。是故非破。今既非所破。是故以無破爲破。則能所俱絶。心無所奇。爲究竟破。」¹⁸⁾

17) 大正藏三八, 858頁下.

18) 大正藏四二, 214頁下.

立과 破의 無礙義를 밝히기 위해 破부터 밝힌다. 情計의 執著은 非理이므로 그 當體가 곧 空이다. 그래서 無破의 破에 이르게 하므로써 破가 곧 無破가 되는 것이다. 또한 執著하며 破를 있게 하면, 도리어 所破와 같게 된다. 그러므로 破가 아닌 것이다. 이제 이미 所破도 아니므로 無破로써 破가 된다면, 곧 能과 所가 俱絶하고, 心도 寄依할바 없으니, 究竟의 破가 되는 것이다. 當體即空의 空義는 破를 是謂하는 情執을 止息하고 相即義를 成立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破即無破라 한다. 破即無破의 相即義는 滯累의 知體가 없으므로 能所가 兩亡하는 畢竟空義를 意味한다. 破의 不留義를 모르고 破의 있음에 執著하면, 所有된 破로서 所破에 이른다. 能破·所破가 輪廻的인 相由相成을 이루게 된다. 無破로써 破를 삼으면 共相의 能所領域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破로써 破를 삼으면, 有所得心의 能所가 滯留하고, 有心의 封閉를 招來하게 된다.¹⁹⁾ 그러므로 能所가 俱絶하고, 心도 寄依할바 없는 以無破爲破를 들어 究竟의 破라 한다.

또 「約情假立. 立即無立. 若能了此立即無立. 無立之立. 爲究竟立.」²⁰⁾라 하여 無立의 立을 究竟의 立이라 한다.

情을 約하여 假立하면 立이 곧 無立이다. 이 立이 곧 無立임을 了得할 수 있다면, 無立의 立을 이루게 되니, 곧 究竟의 立이 된다.

情計의 定立이 아닌 假立이므로, 立은 無立과 相即한다. 이러한 立即無立은 無立之立인 故로 假立이고, 知體를 所有하는 定立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假立은 立과 無立 兩邊에 滯留하지 않는 無礙한 立이다.

<十二門論宗致義記>卷上에 立과 破의 無礙義를 밝힌다. 即,

19) 僧鑑의 <宗本義>에 「若以有爲有. 則以無爲無.」라 한다. 이에 關한 德清 述의 <華嚴略注>卷一에는 「此出計也. 若以諸法爲實有. 則墮常見. 若以諸法爲實無. 則墮斷見.」이라 하여 上記한 <宗本義>文이 常斷二見에 墮함을 밝힌다. 또 吉藏의 <維摩經義疏>卷第二에 有心의 封閉를 든다. 即, 「夫有心則有封. 有封則不覺. 以聖心非心. 故平若虛空.」(大正藏三八, 926頁中).

20) <十二門論宗致義記>卷上: 大正藏四二, 215頁上.

「又以遺情無不契理。故破無不立。立法無不銷情。故立無不破。是以破即立。故無破。立即破。故無立。無立無破。不礙立破。是故立破。一而恒二。二而常一。有不礙空。空不礙有。是謂立破無礙大意也。」²¹⁾

情計를 遮遣하면 理에 契合하지 않음이 없는 故로, 破는 立이 아님이 없다. 轉悟의 法을 立하면, 情을 不銷함이 없다. 故로 立은 破아님이 없다. 그러므로 破는 곧 立이니, 故로 破가 없다. 또한 立은 곧 破이니, 故로 立이 없다. 따라서 無立·無破임에 立·破를 不礙한다. 이런 故로 立·破는 一이면서 恒常 二이고, 二이면서 恒常 一이다. 또한 有·空으로 말하면, 有는 空을 不礙하고, 空은 有를 不礙한다. 이를 立破 無礙의 大意라 한다.

情計의 有所得心의 경우, 立破의 兩邊에 墮하여 分別所及의 歸屬을 벗어날수 없게 된다. 見邊을 벗어나야만 理에 契合할 수 있는 것이다. 情計를 遮遣하므로써 有所得心을 벗어난다. 이러한 境地를 無心の 境地라 한다면, 無心에 依한 是·當의 無礙義 또한 立·破의 無礙에 對應된다. <鑒論>에 無心에 依한 是·當의 無礙義가 明示된다. 即,

「萬若 是인 것에 無心하여 是가 없는 것에 是하고, 當인 것에 無心하여 當이 없는 것에 當할 수 있다면, 終日 是이면서 無是와 矛盾되지 않고, 終日 當이면서 無當과 矛盾되지 않는다. 但只 是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에 是한다고 하는 것이 있고(有), 當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에 當한다고 하는 것이 있으니(有), 患이 되는 所以라고 小心히 생각한다. 왜 나하면 (당신의 所說처럼) 眞是는 是라고 할수 있고, 至當은 當이라고 할수 있다면, 名과 相이 나타나고, 美와 惡이 여기서 생겨, (萬相이) 生生히 奔競하니, 누가 그것을 制止하겠는가.」²²⁾

21) 同藏四二, 215頁上.

22) 「若能無心於爲是。而是於無是。無心於爲當。而當於無當者。則終日是。不乖於無是。終日當。不乖於無當。但恐有是於無是。有當於無當。所以爲患耳。何者。若眞是可是。至當可當。則名相以形。美惡是生。生生奔競。孰與止之。」(<答劉遠民書>).

轉悟내지 解脫의 法을 立하므로, 求知의 歸屬을 벗어나고, 情計의 滯累를 銷溶하는 것이다. 立·破의 兩邊을 넘어서므로, 立·破의 知體가 없는 것이고, 留處 또한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破即立·立即破의 相即 無礙義가 顯示된다.²³⁾ 「一而恒二, 二而常一, 有不礙空, 空不礙有」라 하였으니, 華嚴의 交徹方式에 依한 相即·無礙義가 提示된다. 이러한 相即·無礙義가 <修華嚴奧旨妄盡還源觀>에서 窺知된다. 즉 '塵은 自性이 없으니, 곧 空이다. 幻相은 宛然하니, 곧 有이다. 眞實로 幻色이 無體인 緣由로, 반드시 空에 不異하다. 眞空은 德을 具하고, 有의 表에 徹한다. 色即空이라고 觀하면, 大智를 이루면서도 生死에 不住한다. 또한 空即色이라고 觀하면, 大悲를 이루면서도 涅槃에 不住한다. 色과 空이 無二하고, 悲智가 不殊하므로써 바야흐로 眞實이 된다. …… 色이 幻色이면, 반드시 空을 不礙한다. 또한 空이 眞空이면, 반드시 色을 不礙한다. 萬若 色을 礙하면, 곧 斷空이고, 또 萬若 空을 礙하면 實色인 것이다.'²⁴⁾

上記의 相即·無礙義는 '空有를 全收하면서도 二를 不礙하고, 空有가 二이면서도 不二'인 方式 및 '悲와 智가 相導하는'²⁵⁾ 相即義를 提示한다.

23) 法藏의 <華嚴經義海百門>에 華嚴의 相即義가 明示된다. 即, 「通性起者, 謂塵體 空無所有, 相無不盡, 唯一眞性, 以空不守自性, 即全體而成諸法也, 是故而有萬像繁興, 萬像繁興而恒不失眞體一味, 起恒不起, 不起恒起, 良以不起即起, 起乃顯緣生, 起即不起, 不起乃彰於法界, 是故此塵即理即事即滅即生, 皆由不起而起也, 此塵亦空理亦變亦應, 由起而不起, 是故終日繁興, 而無施設也.」(大正藏四五, 632 頁中).

24) 「謂塵無自性即空也, 幻相宛然即有也, 良由幻色無體必不異空, 眞空具德徹於有表, 觀色即空成大智而不住生死, 觀空即色成大悲而不住涅槃, 以色空無二悲智不殊方爲眞實也, …… 色是幻色必不礙空, 空是眞空必不礙色, 若礙於色即是斷空, 若礙於空即是實色.」(大正藏四五, 638 頁上~中).

25) 「以有即空而不有故是止境也, 以空即有而不空故爲觀境也, 空有全收而不礙二, 故止觀二法融也, 空有二而不二故是止觀二法離也, 即以能觀之心契彼境故是止觀融也, 言悲智相導者, 觀有即空而不失有, 故悲導智而不住空, 觀空即有而不失空, 故智導悲而不帶有, 以不住空之大智故恒隨有以攝生, 即大悲也, 以不帶有之大悲故常處空而體滅, 即大智也, 滅即是不滅之滅, 滅而非滅, 不礙存也, 生即是無生之生, 生而不生, 不持境也, 以生非生故生相紛然而不有, 色即空也, 以滅非滅故空相泯然而不空, 空即色也.」(法藏의 <華嚴遊心法界記>: 大正藏四五, 644 頁上).

앞에 든 相即·無礙의 立破方式은 法藏의 華嚴思想으로 나타난다. 또한 立破의 徹底性은 그의 思想이 보이는 特色이기도 하다. 이러한 立破 내지 與奪의 相即·無礙方式이 二諦中道の 展開方式에서도 提示된다. 다음은 法藏의 中道展開方式을 보기로 한다.

總說로서 眞·俗二諦와 中道를 定義한다. 卽, 「緣有萬差別 約하여 俗諦라고 名하고, 無性一味를 約하여 眞諦라고 名한다. 一緣起에 二理가 不雜하므로 二諦라고 名한다. 緣起는 無二이고, 兩邊을 雙離하므로 中道라고 名한다.’²⁶⁾

<十二門論宗致義記>卷上에

「初中先開後合. 開者. 於一緣起. 開爲二義. 一緣起幻有義. 二無性眞空義. 初義中亦二義. 一非有義. 謂舉體全空. 無所有故. 二非不有義. 謂不待壞彼差別相故. 大品云. 諸法無所有. 如是有. 是故非有非不有. 名爲幻有. 二眞空中亦二義. 一非空義. 謂以空無空相故. 二非不空義. 謂餘一切相無不盡故. 是故非空非不空. 名爲眞空. 經云. 空不空不可得. 名爲眞空. 中論云. 無性法亦無. 一切法空故.’²⁷⁾ 先은 開, 後는 合으로 展開한다. 開하면, 一緣起에 開하여 二義가 된다. 즉 一은 緣起幻有義이고, 二는 無性眞空義이다. 一. 緣起「幻有」義에 (1) 非有 (2) 非不有를 든다. (1) 緣起「幻有」의 非有는 舉體全空하고 無所有함을 意味한다. 곧 幻有가 實有내지 定有가 아닌 非有임을 말한다. (2) 緣起「幻有」의 非不有는 저 差別相의 壞를 不待하는 意味이다. 곧 幻有의 非不有는 斷無가 아님을 말한다. 非不有義는 不有의 無(斷無)에 墮함을 遮遣하므로써 斷無를 넘어서는 非無義로 提示된다. 故로 非有非不有를 幻有라고 名한다.

26) 「約緣有萬差別. 名爲俗諦. 約無性一味. 名爲眞諦. 是故於一緣起. 二理不雜. 名爲二諦. 緣起無二. 雙離兩邊. 名爲中道.」(<十二門論宗致義記>卷上: 大正藏四二, 215 頁中).

27) 大正藏四二, 215 頁中.

二. 無性「眞空」義에 (1) 非空 · (2) 非不空을 든다. (1) 無性「眞空」의 非空은 眞空이 空이라는 空相을 갖지 않는 것이니, 無空相을 意味한다. 곧 共相의 空내지 斷空을 벗어난 非空을 말하는 것이다. (2) 無性「眞空」의 非不空은 餘他的 一切相이 없음을 意味한다. 곧 一切의 共相領域을 떠난 眞空을 말한다. 非空이라 하여 是謂하는 分別計執을 遮遣하므로써 一切의 分別共相을 超脫하는 意味가 提示된다. 故로 非空 非不空을 眞空이라 名한다. 幻有에서 有 · 無를 넘어서는 非有 · 非無義가 提示된다. 또 眞空에서도 空 · 非空의 分別見을 넘어서는 非空 · 非不空義가 提示된다. 幻有와 眞空은 그 單就에서 四句를 超絶하고 百非가 不可한 中道義를 顯示하는 것이다.²⁸⁾

上記한 內容을 圖示하여 보기로 한다. 卽,

- | | | |
|-----------|---------|-------|
| 一. 緣起「幻有」 | (1) 非有 | 非有非不有 |
| | (2) 非不有 | |
| 二. 無性「眞空」 | (1) 非空 | 非空非不空 |
| | (2) 非不空 | |

開에 이어 合을 展開한다. 卽,

「合者, 此有五種. 一謂彼非有. 則是非不有. 以此無二. 爲幻有故. 是故莊嚴論云. 無體非無體. 非無體即體. 無體體無二. 是故說是幻. 此文意以無體爲幻體. 故說無二也. 由此無二不墮一邊. 故名中道. 此是俗諦中道. 二眞中非空. 則是非不空. 以此無二爲眞空. 雙離二邊. 名中道. 此是眞諦中道. 三幻中非有. 則眞中非不空義. 幻中非不有. 則是眞中非空義. 以並無二故. 由此無二. 與前無二復無二故. 是故二諦俱融. 不墮一邊. 名爲中道. 此是二諦中道. 四幻中非有. 與眞中非空. 融無二故. 名爲中道. 此是非有非空之中道. 經云. 非有非無. 名爲中道. 五幻中非不

28) 「先約幻有. 問. 幻有是有耶. 答. 不也. ……是故眞空亦絶四句. 具顯中道故也.」(同<義記>卷上: 大正藏四二, 216頁下~217頁上).

有. 則是眞中非不空. 此非非有非非無之中道. 謂絕中也. 是故二諦踰融. 妙絕中邊. 是其意也.]²⁹⁾ 습에는 다섯가지 방식이 있다. 一. 저 非有는 곧 非不有임을 말한다. 즉 非有即是不無義를提示한다.³⁰⁾ 非有와 非不有(二)의 無二로써 幻有가 된다. 이러한 無二에 緣由하므로 一邊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니, 中道라고 명한다. 이것은 (1) 俗諦中道이다. 二. 眞가운데 非空이 곧 非不空이니, 이 二(非空과 非不空)가 無二하므로써 眞空이 된다. 二邊을 雙離하였으므로 中道라고 명하는 것이다. (2) 이것이 眞諦中道이다. 緣有로서의 幻有를 俗諦라 하고, 無性으로서의 眞空을 眞諦라 하니, (1) 俗諦中道는 一. 幻有의 二義로써, (2) 眞諦中道는 二. 眞空의 二義로써 各各 이루어 진다. 眞과 俗은 各各 單就의 中道를 이루게 된다. 無二는 바로 中道義를 말하는 것이다.³¹⁾ 또한 無二義는 華嚴思想에 있어서 單純한 不一不異義(中觀의) 뿐만 아니라 相即 交徹·一際圓融·無礙義등을 顯示하는 것이다.³²⁾ 三. 幻가운데 非有는 곧 眞가운데 非不空義이고, 幻가운데 非不有는 곧 眞가운데 非空義이다. 이들이 아울러 無二인 것이다. 非有(幻)와 非不空(眞)의 無二·非不有(幻)와 非空(眞)의 無二또한 다시 無二가 된다. 그러므로 二諦가 俱融하여 一邊에 떨어지지 않으므로 中道라고 한다. 이것이 二

29) 同<義記>卷上: 大正藏四二, 215 頁中~下.

30) <探玄記>卷第九에 非有即是非無 方式을 보인다. 即, 「三約風雷動作故不無. 不能自現相故不有. 然此不無即是不有. 故亦不可見. 四混前三句. 謂淨空不有即是風雷及處不無故. 無說無示不異說示. 風雷及處不有即是淨空不無故. 難如幻說示則是無說無示.」(大正藏三五, 291 頁中) 「良以非有即是非無. 故能不捨止而修觀. ……以非無即是非有. 故能不捨觀而修止.」(法藏의 <起信論義記>卷七).

31) 「此有彼無. 無二爲中道.」(<十二門宗致義記>卷上: 大正藏四二, 217 頁上).

32) 「言無二者. 緣起之法似有即空. 空即不空. 復還成有. 有空無二. 一際圓融. 二見斯亡. 空有無礙. 何以故. 眞妄交映全該徹故. 何者. 空是不礙有之空. 即空而常有. 有是不礙空之有. 即有而常空故. 有即不有. 離有邊有. 空即不空. 離無邊空. 空有圓融一無二. 故空有不相礙. 互形奪故雙離兩邊.」(杜順說의 <華嚴五教止觀>: 大正藏四五, 511 頁中) 法藏의 <華嚴遊心法界記>에 杜順說의 上記文과 같은 內容이 있다. 但 「有空無二」 대신 「二而無二」, 「一際圓融」 대신 「一際不殊」, 「有是不礙空之有」 대신 「有是不異空之有」 등 다른 文句가 섞여 있다. (大正藏四五, 644 頁上).

諦中道이다. 三論에 覆中³³⁾을 明示한다. 三論의 俗諦覆中이 幻有의 非有非不有와 眞空의 二義에 對應되는 非無非不無를 表한다. 無二로써 二諦가 俱融하여 中道를 이루는 中道方式 대신 三論에서는 二諦의 合明 中道方式을³⁴⁾ 明示한다. 四. 幻가운데 非有와 眞가운데 非空이 鎔融하여 無二인 故로 中道라 한다. 곧 非有非空의 中道를 말한다. 三論에서 非有非空에 對應되는 非有非無을 들어 單中을³⁵⁾ 表하나, 「融·無二」方式을 表明하지 않는다. 五. 幻가운데 非不有는 곧 眞가운데 非不空이다. 이것은 非非有非非無의 中道이고, 中을 超絶하는 絶中의 中을 말한다. 非有非無의 中道에 住著하여 是謂하는 見地를 超絶하는 意味가 된다. 그러므로 二諦가 鎔融되고 中邊이 妙絶되는 것이다. 三論에 偏病이 除去되면 中도 不立하는 絶待中을³⁶⁾ 表明한다.

法藏系에는 華嚴의 轉悟方式으로 鎔融을 明示한다. 交徹方式에 依한 鎔融으로 中道를 이룸이 法藏系의 中道方式이다. 이러한 中道方式을 보면 <十二門論宗致義記>卷上에, 「約遍計所執. 情有理無. 此中約妄情謂有. 如空華於病眼. 是凡愚所取以爲俗. 約理中實無. 如空華於淨眼. 是聖智所知爲眞. 此無彼有. 交徹無礙. 融爲一性. 故百論中. 猶如一椽. 於苴爲小. 於齋爲大. 大小無礙. 名爲一椽. 當知此中有無亦爾. 如是無二. 名爲中道. 故論云. 無二有此無. 是二名中道. 論自釋云. 無二者. 無能取所取有也. 有此無者. 有此能取所取無也. 此有彼無. 無二爲中道. 此

33) 「覆假者. 假有假不有是俗諦覆. 假無假不無是眞諦覆. 非有爲中道. 是俗諦單中. 非無爲中道. 是眞諦單中. 非有非不有. 是俗諦覆中. 非無非不無. 是眞諦覆中也.」(<大乘玄論> 卷第二; 大正藏四五, 33 頁上).

34) 「二諦合明中道者. 非眞非俗爲二諦合明中道. 此異眞諦中道. 眞諦中非有非無. 不非眞非俗. 二諦合明中道. 即非眞非俗也.」(<二諦義> 卷下; 大正藏四五, 108 頁上) 「二諦合明雙泯二諦.」(<中論疏>; 大正藏四二, 12 頁上).

35) 「假有是世諦. 假無是眞諦. 此是單假. 非有非無是中道也. 此是單中.」(<大乘玄論> 卷第二; 同藏四五, 32 頁下).

36) 「絶待中者. 本對偏病是故有中. 偏病既除中亦不立. 非中非偏. 爲出衆生強名爲中. 謂絶待中. 故此論云. 若無有始終. 中當云何有. 經亦云. 遠離二邊不著中道即其事也.」(<三論玄義>; 同藏四五, 14 頁中~下).

中有此無者，只是無彼有故也。此是情理相望說。若單就情，一切皆是情謂虛妄，若唯約理，一切有無等並無所有，無所有亦無所有，一切皆絕，亦無中無邊。」³⁷⁾

二性가운데 遍計所執을 約하여 그 二義를 든다. 二義는情有와 理無이다.³⁸⁾情有는 妄情을 約하여 有라고 하는 것이다. 마치 眼病으로 나타나는 空華같은 有이다. 곧 情計의 虛妄한 有인 것이다. 凡愚의 取하는 바이니, 俗이 된다. 理가운데 實이 없음(無)을 들면, 마치 淨眼에는 空華의 나타남이 없는것(無)과 같다. 이것은 聖智의 아는바이고 眞이 된다. 情計에 依하여 空華의 나타남이 있으나(有), 道理에 있어서 없는것(無)이다. ‘當情稱執에 依해 有를 나타내지만, 道理에 있어서 畢竟 이것은 없는것(無)이다. 無處에 有를 橫計한 緣故인 것이다. 마치 木杌에 鬼가 있다고(有) 橫見한것 같다. 그러므로 鬼의 存在(有)는 나무에 畢竟으로 없는것(無)이다. 그 나무에 鬼가 없지 않다면(不無), 鬼의 있음(有)을 橫計한다고 말할수 없는 것이다. 나무에 鬼가 진실로 있다면, 橫計에 緣由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橫計라면 그것이 理無임을 明知할 것이다. 理無로 緣由하여 橫計를 이룰수 있다. 또한 橫計를 이루므로써 理無를 알게 된다. 그러므로 橫計의情有와 理無는 無二로서 오직 一性이다.’³⁹⁾

情「有」는 俗·理「無」는 眞으로 現象의 有와 畢竟의 無가 隔別되지 않는 것이다. 理「無」에 緣由하여 橫計의 情「有」가 成立되고, 橫計의 情「有」로써 理「無」를 알게 하는 것이다. 곧 緣成·悟得義가 提示된다. 俗「有」·眞「無」는 交徹·無礙하고, 鎔融하여 一性이 된다. 곧 交徹하여 無二로서 一性이 되는 것이다. 俗「有」·眞「無」는 同一性으로서 歸

37) 同藏四二, 217頁上.

38) 「所執中, 二義者, 一情有義, 二理無義。」(〈華嚴五教章〉: 同藏四五, 499頁上).

39) 「所執性中, 雖復當情稱執現有, 然於道理畢竟是無, 以於無處橫計有故, 如於木杌橫見有鬼, 然鬼於木畢竟是無, 如其於木鬼非無者, 即不得名橫計有鬼, 以於木有非由計故, 今既橫計, 明知理無, 由理無故得成橫計, 成橫計故方知理無, 是故無二唯一性也。」(同〈五教章〉: 同藏四五, 499頁中~下).

結되지만, 그 轉悟水準에 있어서는 凡·聖의 境地로 나타난다. 이러한 意味는 交徹·無二方式이 求知의 手段이 아니라 全人的 解脫方式임을 提示한다. 緣成또한 計執과 轉悟의 狀況을 無所得方式으로 提示하므로 悟道에 資用되는 것이다. 捺·苾·藥에 있어서 그 大小는 緣成이므로, 大小의 是謂(有)와 非謂(無)를 固定할 수 없다. 相待空에서 有이고 畢竟空에서는 無이다. 故로 大小의 無礙義가 一捺에서 顯示되는 것이다. 이러한 有無는 無二로서 中道라고 한다. 無二는 此無의 畢竟空내지 理無가 있으므로 (有), 有無二를 中道라 한다. 無二란것은 能取·所取의 有가 없는 것(無)이다.⁴⁰⁾ 곧 分別計執의 有가 없는 것이다. 또 此無가 있다(有)는 것은 이 能取·所取의 없음(無)이 있다(有)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有와 저 無는 無二로서 中道가 된다. 이 가운데 此無가 있다는 것은 單只 저 有가 없음(無)을 말하는 것이다. 곧 畢竟空내지 理無義를 顯示하는 것이다. 이는 情과 理의 相望說이다. 오직 理를 約한다면 모든 有와 無등은 無所有이다.⁴¹⁾ 이 無所有 또한 無所有이므로, 一切를 다 超絶하는 것이다. 能取·所取가 並絶되고, 無所得心の 深意가 實現되어 中과 邊의 境·智가 俱絶된다. 곧 無中無邊義를 顯示하는 것이다.

4. 交徹義

法藏의 <華嚴一乘教義分齊章>卷第四에,

「初三性同異說有二門. 先別明後總說. 別中亦有二. 先直說後決擇. 前中三性各有二義. 眞中二義者. 一不變義. 二隨緣義. 依他二義者. 一

40) 「以不取有是遺有執, 不壞有是遺無執也」(<探玄記>卷第七: 同藏三五, 225頁下)라 하여 不取有義를 밝힌다.

41) <二諦義>卷上에 如是有가 聖人에게는 無所有이고, 無所有가 凡人에게는 如是有라고 한다. 即, 「世間顛倒謂有. 於世人是實名爲諦. 當知, 一切第一義諦. 於凡是世諦也. 如大品云. 諸法無所有如是有. 如是有無所有, 如是有於聖人無所有. 卽世諦爲第一義諦. 無所有於凡如是有. 第一義諦爲世諦也.」(同藏四五, 79頁下).

似有義，二無性義，所執中二義者，一情有義，二理無義。由眞中不變，依他無性，所執理無，由此三義故，三性一際同無異也。此則不壞末而常本也。經云，衆生即涅槃，不復更滅也。又約眞如隨緣，依他似有，所執情有，由此三義亦無異也。此則不動本而常末也。經云，法身流轉五道，名曰衆生也。即此三義與前三義是不一門也。是故眞該妄末妄徹眞源，性相通融無障無礙。」⁴²⁾

三성에 各二義가 있으므로 그 各二義를 밝힌다. 즉, (1) 眞中の 二義란 것은 一은 不變義이고 二는 隨緣義이다. (2) 依他的 二義란것은 一은 似有義이고 二는 無性義이다. (3) 所執중의 二義란것은 一은 情有義이고 二는 理無義를 말한다. (1) 眞의 不變, (2) 依他的 無性과 (3) 所執의 理無로 말미암아 곧 이 三義에 緣由하는 故로 三性一際하여 같으며 無異한 것이다. 이는 곧 不壞末而常本인 것이다. 經에 「衆生即涅槃, 不復更滅也」라 한다.⁴³⁾

또 (1) 眞如의 隨緣⁴⁴⁾ (2) 依他的 似有와 (3) 所執의 情有를 約한 즉, 이 三義로 말미암아 또한 無異한다. 이는 곧 不動本而常末인 것이다. 經에 이르되, 「法身流轉五道, 名曰衆生」이라 한다. 이는 곧 不動本而常末인 것이다. 이 三義(隨緣·似有·情有)와 앞의 三義(不變·無性·理無)는 不一門인 것이다. 이런 故로 眞은 妄의 末을 該하고, 妄은 眞源에 徹한다. 性相이 通融하여 無障無礙한 것이다. 上記한 三性的⁴⁵⁾ 六

42) 大正藏四五, 499 頁上.

43) <探玄記>卷第十五에 「以巾上住自位義與兔上體空義, 合爲一際名爲不異. 此是以末歸本, 就本明不異. 經云, 一切衆生則如也. 不復更滅等」(大正藏三五, 384 頁下)라 하여 一際·不異(無異)義를 明示한다. 여기서는 不變義(巾上住自位義)와 無性(兔上體空義)가 合하여 一際가 됨에 不異라고 名하는 것이다(澄觀의 <大疏鈔>卷第七十五: 大正藏三六, 593 頁上 參照).

44) 法藏의 <起信論義記>卷三에 眞如의 二義등을 밝힌다. 即, 「謂眞如有二義. 一不變義. 二隨緣義. 無明亦二義. 一無體即空義. 二有用成事義. 此眞妄中各由初義故. 成上眞如門也. 各由後義故. 成此生滅門也.」.

45) 法藏의 <華嚴經義海百門>에 三性を 通佛敎의인 體系로 明示한다. 即, 「明三性者. 謂塵上迷心所執計有相生以爲實也. 今了塵圓小之相. 取不可得. 惑相自亡. 是爲遍計相. 無性爲人無我也. 又塵與自心爲緣. 心法方起. 今了緣無自體. 依心方現. 無自體生. 是爲依他也. 無生性是法無我也. 由二義現前. 乃圓成勝義性也.」(大正藏四五, 634 頁上~中).

義를 圖示하면,

- 三
性
- (1) 眞如(圓成實性) : a) 不變義 b) 隨緣義
 (2) 依他(依他起性) : a) 似有義 b) 無性義
 (3) 所執(遍計所執性) : a) 情有義 b) 理無義⁴⁶⁾
- (1) a · (2) b · (3) b : 無異(不變末而常本) 不
 ① b · (2) a · (3) a : 無異(不動本而常末) 門

<華嚴一乘教義分齊章>卷第四에,

「聖說依他以爲有者。此即不異空之有。何以故。〔以〕從衆緣無體性故。一一緣中〔無作者〕。無作者故。由緣無作方得緣起。是故即非〔有〕之有。名依他有。是即聖者不動眞際建立諸法。」⁴⁷⁾

聖인이 依他를 說하여 有라고 하는것은 空에 不異한 有를 말하는 것이다. 衆緣에 좃아서 體性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 緣가운데 作者가 없다. 作者가 없는 故로 곧 緣의 無作으로 말미암아 緣起를 얻는 것이다. 이런 故로 非有에 即한 有를 依他的 有라고 名한다. 이는 곧 聖者가 眞際를 不動하고 諸法을 建立하는 것이다. 有는 不異空의 有를 말하며, 不動眞際建立諸法을 나타낸다. 이것은 上記한 不動本而常末義와 相應하는 것이다.

<華嚴一乘教義分齊章>卷第四에,

「若謂依他如言有者。即緣起有性。緣若有性即不相藉故即壞依他。壞依他者良由執有。」⁴⁸⁾

萬若 依他를 말과 같은 有라고 한다면, 이것은 有性을 意味하게 된다. 緣이 萬若 有性이라면, 相藉하지 않는 것이다. 相藉하지 않는 故

46) 法藏의 <起信論義記>卷二에 情有理無와 理有情無를 든다. 即, 「良以御心安境. 情有理無. 眞如之德. 理有情無.」.

47) 大正藏四五, 500 頁下.

48) 同藏四五, 500 頁下.

로 依他를 破壞하는 것이다. 依他를 破壞한다는 것은 實로 有의 執著에 因由하는 것이다. 相藉相由의 依他有 곧 即非有之有는 不動眞際 建立諸法義를 顯示한다. 萬若 依他를 戲論·分別을 통한 如言의 有로 執見하면 依他를 破壞하게 된다. ‘一切의 모든 法이 因緣을 좇아 난다. 作者가 없는 故로 지을때 住하지 않고, 自性이 없는 故로 分別이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凡夫가 因緣에 迷하여 增益誘, 損減誘, 相違誘, 戲論誘 곧 四誘을 일으키는 것이다.⁴⁹⁾

〈華嚴 一乘教義分齊章〉卷第四에,

「聖說緣生以爲空者。此即不異有之空也。何以故。以法從緣生方說無性。是故緣生有者方得爲空。若不爾者無緣生因。以何所以而得言空。是故不異有之空名緣生空。此即聖者不動緣生說實相法也。若謂緣生如言空者。即無緣生。無緣生故即無空理。無空理者良由執空。」⁵⁰⁾

聖인이 緣生을 說하여 空이라 함은 이는 곧 有와 不異한 空을 말하는 것이다. 왜냐 하면, 法이 緣을 좇아 生함을 無性이라 說하는 故로 緣生의 有란 것이 바야흐로 空이 됨을 얻기 때문이다. 萬若 그렇지 않다면, 緣生의 因이 없는 것이다. 어떠한 所以로써 空이란 말을 얻는가. 이런 故로 不異有의 空을 緣生의 空이라 名한다. 이것은 聖者가 緣生을 不動하고 實相의 法을 說하는 것이다. 萬若 緣生을 如言의 空이라고 是謂한다면, 곧 緣生은 없는 것이다. 따라서 緣生이 없는 故로 空理가 없다. 空理가 없다는 것은 實로 空의 執著에 因緣한 것이다.

49) 「夫論一切諸法。從因緣生。無作者故。作時不住。無自性故。非分別所及。諸法之性如是。不可取著。然凡夫二乘。諸法生時。即執爲有。但因緣之法。其性離有。執言有者。不稱理故。名增益誘。有既成誘。無應合理。義亦不然。因緣之法。性離離有。然起現前。不可言無。於非無法上。執言無者。不應理故。名損減誘。有無既是其過。亦有亦無應是道理。即若。因緣是一法。性不相違。不相違者。名因緣法。亦有亦無其性相違之法。即非因緣。非因緣故。相違誘也。既有亦無是相違法。不稱實見。非有非無應與理合。即若言。夫論道理。約因緣以顯。非有非無。乃是因緣之外。不應道理。戲弄諸法。名戲論誘。」(法藏撰：〈大乘起信論別記〉)。

50) 大正藏四五, 501頁上.

空은 不異有의 空으로서 從緣生의 無性 곧 緣生의 空性을 말하며, 不勳緣生說實相法을 顯示하는 것이다. 緣生을 如言의 空(執空)이라고 是謂하면, 緣生의 空(不異有의 空)이 破壞되고, 空理가 없게 된다.

法藏은 三性說을 그의 創案에 依한 眞妄交徹의 轉悟方式으로 資用하고 있다.

法藏의 <十二門論宗致義記>卷上에는 三性を 二諦中道로 資用한다. 卽, 「第三通約三性辨者. 先開. 後合. 開者. 所執有二義. 謂情有理無. 依他亦二義. 謂幻有性空. 圓成亦二義. 謂體有相無. 合者. 以所執情有. 依他幻有. 圓成相無. 如是有無無二. 爲俗諦中道. 所執理無. 依他性空. 圓成體有. 如是有無無二. 名眞諦中道. 如是眞俗. 合而恆離. 離而恆合. 離合無礙. 是二諦中道.」⁵¹⁾

三性を 通約하여 辨明하는 것이다. 先은 開, 後는 合으로 展開한다. 開하면, (1) 所執에 二義가 있으니, a)情有와 b)理無를 말하는 것이다. (2) 依他또한 二義이니, a)幻有와 b)性空을 말하는 것이다. (3) 圓成역시 二義이니, a)體有와 b)相無를 말하는 것이다. 合하면 (1) 所執의 a)情有, (2) 依他的 a)幻有, (3) 圓成的 b)相無로써 이와 같은 有無의 無二는 俗諦中道가 된다.

또 다른 한 편으로 (1) 所執의 b)理無, (2) 依他的 b)性空, (3) 圓成的 a)體有 곧 이와 같은 有無의 無二를 眞諦中道라 名한다. 이러한 眞俗은 合하면서 恆離하고, 離이면서 恆合하니, 離合이 無礙하다. 이는 二諦中道이다.

上記內容을 圖示하면,

- (1) 所執 : a)情有
- (2) 依他 : a)幻有 有無의 無二 : 俗中
- (3) 圓成 : b)相無

51) 同藏四二, 217頁中.

- (1) 所執 : b) 理無
 (2) 依他 : b) 性空 有無의 無二 : 眞中
 (3) 圓成 : a) 體有
- 眞 俗 合而恒離 離合의 無礙 : 二中
 離而恒合

三性を 資用하여 有無의 無二를 實現하는 것이고, 이 無二는 眞·俗의 中道를 顯示하는 것이다. 또한 眞俗의 離合無礙로 二諦中道를 實現하는 것이다.

澄觀의 <大方廣佛華嚴經疏>卷第十四에 無二가 中道義를 顯示하는 法藏系의 脈絡을 보인다. 卽,

「謂有非有無二，爲一幻有，空非空無二爲一眞空，又非空與有無二爲一幻有，空與非有無二爲一眞空，又幻有與眞空無二，爲一味法界，卽中道義。」⁵²⁾

有와 非有의 無二가 一幻有로 되고, 空과 非空의 無二는 一眞空이 된다. 또한 非空과 有의 無二는 一幻有가 되고, 空과 非有의 無二가 一眞空이 된다. 또 幻有와 眞空의 無二는 一味의 法界가 되니 곧 中道義이다. 이러한 無礙·無分別의 法門은⁵³⁾ 戲論과 分別을 넘어서 解脫方式인 것이다. 一幻有·一眞空의 無二·中道義는 法藏이 幻有와 眞空을 單就幻有，四句皆絕，亦無寄中道」·「眞空亦絕四句，具顯中道」⁵⁴⁾라고 한 意味와 別軌가 아닌 것이다.

澄觀의 <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卷第一에 澄觀의 眞妄交徹方式

52) 同藏三五, 604 頁下.

53) 「離相離性無礙無礙無分別法門。」(同藏三五, 604 頁下).

54) 「先約幻有，問，幻有是有耶，答，不也，……二約眞空者，問，眞空是空耶，答，不也，以是眞空，非斷空故，是有耶，不也，相無不盡故，是俱耶，不也，無二法故，不相違故，是俱非耶，不也，以絕待故，具實義故，是故眞空，亦絕四句，具顯中道故也。」(<十二門論宗義記>卷上：大正藏四二，216 頁下~ 217 頁上)。

이 明示된다. 卽, 「問眞妄交徹行相如何. 言並皆交徹者. 約相宗以明. 唯識等宗不得交徹. 今就華嚴. 則前諸義皆得交徹. 以具前卽一心等義故. 如約遍計爲妄者. 情有卽是理無. 妄徹眞也. 理無卽是情有. 眞徹妄也. 若染分依他爲妄者. 緣生無性. 妄徹眞也. 無性緣成眞徹妄也. 若約生死涅槃說者. 生死卽涅槃. 妄徹眞也. 涅槃卽生死. 眞徹妄也. 故中論云. 生死之實際. 卽是涅槃. 涅槃之實際. 卽是生死際. 如是二際者. 無毫釐差別. 卽交徹也. 此下經云. 有靜說生死. 無靜說涅槃. 生死及涅槃. 二俱不可得. 亦俱空俱有. 交徹也.」⁵⁵⁾

眞妄交徹의 行相을 묻는다. 交徹에 關해서, 唯識宗은 交徹을 얻지 못하고, 華嚴에서는 交徹을 얻는다는 것이다. 遍計를 約하여 妄이 되는 境遇, 情有가 곧 理無이니 妄徹眞이다. 理無가 곧 情有이니 眞徹妄이다. 染分의 依他를 約하여 妄이 되는 境遇, 緣生이 無性이니 妄徹眞이다. 無性이 緣成이니 眞徹妄이다. 生死와 涅槃을 約하여 說할 境遇, 生死가 곧 涅槃이니 妄徹眞이다. 涅槃이 곧 生死이니 眞徹妄이다. 故로 <中論>에 이르되, ‘生死의 實際는 곧 涅槃의 際이고, 涅槃의 實際는 곧 生死의 際이다. 이러한 二際란 것은 털끝 만한 差別이 없다.’⁵⁶⁾ 곧 交徹을 말한 것이다.

上記한 交徹方式을 圖示해 보면 아래와 같다. 卽,

- | | |
|------------|--------------|
| (1) 遍計爲妄 | a)情有卽是理無…妄徹眞 |
| | b)理無卽是情有…眞徹妄 |
| (2) 染分依他爲妄 | a)緣生無性…妄徹眞 |
| | b)無性緣成…眞徹妄 |
| (3) 生死涅槃說 | a)生死卽涅槃…妄徹眞 |
| | b)涅槃卽生死…眞徹妄 |

55) 大正藏三六, 8頁下.

56) 「涅槃之實際 及與世間際 如是二際者 無毫釐差別.」(<中論>, 觀涅槃品第二十五, 第20偈).

앞에 밝힌 法藏의 交徹方式과 對照해 보면, 澄觀의 眞妄交徹內容에서는 三性を 總括한 開合·不二門이 明示되지 않는 것이다. 澄觀의 경우, 遍計(情有와 理無)·依他(緣生과 無性)을 들고 있으나, 三性の 大義(法藏의) 가운데 遍計의 情有와 理無, 依他的 無性は 法藏의 것과 같다. 澄觀의 <華嚴經疏>에는 「以空義故, 說依他無性即是圓成」·「以有義故說於不變, 以空義故說於隨緣, 此二不二, 隨緣即是不變」⁵⁷⁾ 이라 한다. 즉 依他的 無性이 곧 圓成이고, 二(不變과 隨緣)는 不二이니⁵⁸⁾ 隨緣이 곧 不變이다. 有義·空義에 基한 「無性即是圓成」은 知體를 所有하지 않는 것이다.⁵⁹⁾ 澄觀의 眞妄交徹方式이 三性에 基한 組織的인 構造를 벗어난 展開를 보이므로, 法藏의 것과 對照가 된다. 이러한 背景내지 思想的 脈絡에는 超信論의 思想이 그 基軌가 되겠지만⁶⁰⁾, 中觀思想(中·印의)의 影響이 보인다.⁶¹⁾ 中觀의 影響을 통한 眞妄交徹義를 더살펴 보기로 한다. 앞에 이미 든 眞妄交徹가운데,

(3) 生死涅槃說: a) 生死即涅槃(妄徹眞)·b) 涅槃即生死(眞徹妄)는 約生死涅槃說에 관하여 <中論>觀涅槃品第二十五, 第20偈를 들어 交徹義를 밝힌 것이다. 이 第20偈와 聯關된 觀涅槃品, 第19偈를 보면,

57) 大正藏三五, 604 頁下.

58) 二不二的 展開方式은 中國般若系 특히 三論의 特色으로 보여진다. 「非二非不二, 而能二能不二, 雖能二能不二, 未曾二不二, 故二不二無礙, 名爲解說也.」(<淨名玄論>卷第七: 大正藏三八, 904 頁上) 「華嚴云, 一切有無法, 了達非有無, 不著不二法, 以無一二故, 達有無不二, 既無二即無不二, 故云不著不二法以無一二故也, ……爲是故今明, 既識二不二, 無二即無不二, 如是清玄轉悟, 一切皆離也.」(<二諦義>卷下: 大正藏四五, 109 頁中) 「於道未始二, 於緣未始一, 故衆生即是佛, 於緣未始一, 故六道異法身, 六道異法身, 故六道覆法身, 名爲如來藏, 如來藏者, 謂如來胎, 以失於不二, 故起二見, 由斯二見, 纏裹不二, 不二道不得現前, 故此二見爲不二之胎.」(<淨名玄論>卷第一: 大正藏三八, 859 頁中).

59) 「無性即是圓成, 即各不相知.」(澄觀의 <華嚴經疏>卷第十四: 大正藏三五, 604 頁下).

60) 「不了依他故成遍計者, 以經云虛妄取異相故, 故起信云, 一切諸法皆依妄念而有差別, 若離心念則無一切境界之相, 第四句喻依他相盡體即圓成者, 以言大種無差別故, 大種即喻眞如, 謂心體離念, 即是如來, 平等法身, 從緣無性, 即眞如矣.」(澄觀의 <演義鈔>卷第四十二: 大正藏三六, 322 頁上).

61) 「由無方有, 一性能成種種, 緣生故空, 種種能成一性, ……緣生故空, 即上云, 諸法無作用亦無有體性, 是故彼一切, 各各不相知也, 三無性故有, 論云以有空義故, 一切法得成.」(<華嚴經疏>卷第十四: 大正藏三五, 604 頁中).

「涅槃與世間 無有少分別 世間與涅槃 亦無少分別」

이 梵文偈에

na saṃsārasya nirvāṇātkimcidasti viśeṣaṇam,

na nirvāṇasya saṃsārātkimcidasti viśeṣaṇam.

(輪廻는 涅槃과 조금도 差異가 없고, 涅槃은 輪廻와 조금도 差異가 없다.)

上記한 梵文偈에 관한 月稱 釋에,

‘此世에 (實)世尊의 存在를 是謂하거나, 非謂하는 것은 不可能하고, 또 涅槃後 (實)世尊의 存在를 是謂하거나, 非謂하는 것도 不可能하므로, 바로 이와같이 輪廻와 涅槃사이에는 조금도 差異가 없는 것이다.

檢討에서 兩者의 本質이 同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때문에 世尊은 말씀하셨다. 즉, “比丘들이여! 生·老·死로 된 輪廻는 始終이 없는 것이다.” 이는 바로 輪廻와 涅槃은 差異가 없기 때문이다.’⁶²⁾

此世와 涅槃後에 있어 實在的 世尊의 存在에 대한 是謂와 非謂가 不可하다는 不可得義가 輪廻와 涅槃의 無差異를 提示하는 것이다. ‘兩者의 本質이 同一한 緣故’ (yostulyarūpatvāt)란 뜻은 無二의 一味 내지 本味⁶³⁾의 意味와 相應한다. ‘輪廻는 始終이 없다’는⁶⁴⁾ 世尊의 說은 澄觀의 <演義鈔>卷第二十二에 引用된 <中論第十一品, 第 1, 2 偈와 聯關을 갖는다. 이 <演義鈔>卷第二十二에 眞妄交徹을 明示하는 眞妄의 無始無終義를 든다. 即,

62) yasmāttiṣṭhamapi bhagavān bhavatītyevamādinā nohyate, parinirvṛto’pi nohyate bhavatītyevamādinā, ata eva saṃsāranirvāṇayoḥ parasparato nāsti kāścid viśeṣaḥ, vicāryamāṇayostulyarūpatvāt. yaccāpidamuktaṃ bhagavatā-anavarāgro hi bhikṣavo jātijarāmaraṇa saṃsāra itī, tadapi ata evopapannam, saṃsāranirvāṇayor-viśeṣasyābhāvāt. (MV, p.535).

63) 「幻有與眞空無二，爲一味法界」·「隨其流處有種種異，而其本味停留雪山。」(<華嚴經疏>卷第十四：大正藏三五，604頁下)。

64) uktaṃ hi bhagavatā-anavarāgro hi bhikṣavo jātijarāmarāṇasaṃsārah itī. (MV, p. 218).

「若言先妄後眞，眞則有始，若謂先眞後妄，妄由何生，若妄依眞起，眞亦非眞，若妄體即眞，則妄亦無始，爲破始起立無始言，始既不存終從何立，無終無始豈有中間，故中論云，大聖之所說，本際不可得，生死無有始，亦復無有終，若無有始終，中當云何有，是故於此中，先後共亦無，眞妄兩亡方說眞妄，眞妄交徹無定始終。」⁶⁵⁾

妄을 先, 眞을 後라고 말한다면, 眞은 곧 始가 있다. 그 反對로 眞이 先, 妄을 後라고 말한다면, 妄은 무엇에 緣由하여 生하는가. 妄이 眞에 依하여 일어 난다면, 眞또한 妄의 根據가 되니 眞일수 없다. 妄體가 곧 眞이라면, 妄또한 歸屬의 依起가 없으므로 無始인 것이다. 이와 같이 始가 이미 없다면, 終도 따라야 할 歸屬의 依處가 없으며 그 存立이 不可能한 것이다. 따라서 無始無終이라면, 그 中間또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論據는 <中論>(觀本際品第十一)에 있다. 즉, ‘大聖의 說한바 本際는 不可得이라 함은 生死에 始가 있지 않고, 또한 다시 終이 있지 않다는 것이다.’(第1偈)⁶⁶⁾ ‘始와 終이 있지 않다면, 中間이 어찌 있겠는가. 그러므로 여기에는 先·後·同時또한 없는 것이다.’(第2偈)⁶⁷⁾ 이러한 引證에 依하여 眞妄의 無始無終을 밝히는 것이다. 眞과 妄들이 亡絶하므로 眞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곧 眞妄交徹義를 兩亡義에서 明示한다. 그래서 眞妄의 交徹은 眞妄의 無始無終(無定始終)⁶⁸⁾이라는 眞妄의 意味에 歸結된다. 이러한 交徹義는 中觀思想에 대한 새로운 理解를 갖게 한다.

앞서 든 「中論云，生死之實際，即是涅槃際，涅槃之實際，即是生死

65) 大正藏三六，166頁中。

66) pūrvā prajñāyate koṭirnetyuvāca mahamuniḥ, saṃsāro'navarāgro hi nāsyādirnāpi paścimam. MK. XI, 1. (前際는 모른다고 大聖은 말했다. 輪廻는 始終이 없고, 輪廻에는 前도 없고 後도 없다.)

67) naivāgraṃ nāvaram yasya tasya madhyaṃ kuto bhavet, tasmānātropapadyante pūrvaparasaḥakramam. MK. XI, 2. (始와 終이 없는데, 中間이 어떻게 있겠는가. 그러므로 여기(輪廻)에는 前·後와 俱時的 次第가 있을 수 없다.)

68) 「二約不變，迷悟生滅來往紛然，眞界湛若虛空，體無始故即無初際，悟絕始終，即無後際，二唯約妄說，復有二義，一暨論去來，過去無始，未來無終，無初後際，二約橫說，妄念攀緣浩無邊際。」(<演義鈔>卷一：大正藏三六，1頁中～下)。

際。如是二際者。無毫釐差別」(〈演義鈔〉卷第一)이라는 <中論>의 偈頌은 羅什의 譯과 同一하지 않는 것이다. 羅什 譯에는 「涅槃之實際及與世間際 如是二際者 無毫釐差別」이라 한다.

이에 該當되는 梵文의 偈頌은,

niravānasya ca yā koṭiḥ koṭiḥ saṃsārasya ca
na tayorantaram kimcitsusūksmāmapi vidyate. MK. XXV, 20.

(涅槃의 實際는 輪廻의 實際이다. 이 둘에는 어떤 毫釐의 差別도 없다.)

위에 든 第20偈의 第一句를 보면, <演義鈔>에 引用된 「即·是」라는 文句가 羅什 譯에는 없다. 羅什 譯에는 「涅槃之實際 及與世間際」라 하여 述語가 없다. <演義鈔>에 引用된 「涅槃之實際. 即是生死際」는 梵文의 ‘涅槃의 實際는 輪廻의 實際이다’에 該當된다.

涅槃과 生死는 性空의 寂滅義에 의하면 둘의 前·後際가 雙亡하고⁶⁹⁾, 一切의 戲論을 벗어나는 것이다. 相待觀에서는 相由相成하나, 絕待觀에서는 兩亡하여 思慮를 超絶하는 것이다.

‘有所得人은 或은 生死 或은 涅槃하지만, 이것이 다 生死이다. 이제 生死와 涅槃을 求해도 不可得임을 涅槃이라 名한다. 또 生死가 있다고 말하면, 곧 生死 때문에 繫縛된다. 涅槃이 있다고 執著하면, 涅槃때문에 繫縛된다. 涅槃을 名하여 解脫이라 한다. 이미 繫縛인데 어떻게 涅槃이라 名하겠는가. 이제 이 品에는 生死와 涅槃을 求해도 不可得이니, 二繫를 脫함을 名하여 解脫이라 한다.’⁷⁰⁾

生死와 涅槃의 不可得義로서 涅槃을 밝힌다. 또한 不可得義는 生死와

69) <中論>第二十五品, 第20偈의 月稱 釋에, na ca kevalam saṃsārasya nirvāṇanāvīṣiṣ-
ṭatvāt pūrvāparakoṭikalpanā na sambhavati. MV. p.535.(輪廻와 涅槃은 不異無差別
할 뿐이므로, 그 前·後際를 想像함은 不可能하다.)

70) 「有所得人若生死若涅槃, 皆是生死. 今求此生死涅槃不可得乃名涅槃. 又言有生死則爲生死
所繫, 執有涅槃爲涅槃所繫. 涅槃名爲解脫. 既是繫縛, 何名涅槃. 今此品求生死不可得.
脫於二繫名爲解脫.」(吉藏의 <中觀論疏>卷第十本: 大正藏四二, 155 頁中).

涅槃의 二繫를 超脫하는 解脫義로 提示된다. 不可得義는 「執非涅槃爲涅槃」·「執涅槃爲非涅槃」⁷¹⁾이라는 是謂·非謂의 分別을 넘어서는 中道義이며 解脫方式을 意味한다.⁷²⁾

‘衆生이 虛妄하기 때문에 生死를 이룬다. 生死를 멈추기 위한 고로, 억지로 涅槃이라 說한다. 生死가 除去되면, 곧 涅槃도 止息된다. 故로 <華嚴>(六十華嚴)에 “生死와 涅槃들은 모두 不可得이다”고 말한다.’⁷³⁾

上記文은 假名空·畢竟空의 絶義를 提示한다. 生死와 涅槃 곧 二俱의 雙絶義를 <華嚴>의 二俱不可得義로 引證한다. 이러한 脈絡에서 絶義는 不可得義로 提示된다. 不可得義가 中觀에서는 相即·中道義로, 澄觀의 華嚴系에서는 交徹義로 나타난다. 「生死之實際. 即是涅槃. ……即交徹也」(<演義鈔>卷第一의)의 意味도 위에는 兩系의 聯關된 思想을 나타낸 것이다.

澄觀의 <演義鈔>卷第一에,

「若依二諦,⁷⁴⁾ 以妄爲俗諦. 以眞爲眞諦. 言交徹者. 即俗而眞. 即眞而俗故. 故影公云. 然統其要歸. 則會通二諦. 以眞諦故無有. 以俗諦故無無. 眞故無有. 則雖無而有. 俗故無無. 則雖有而無. 雖有而無則不累於有. 雖無而有則不滯於無. 寂此諸邊故名中道. 即眞妄交徹也. 眞故無

71) 同藏四二, 155 頁中.

72) 拙文 <中觀의 轉悟方式에 있어서 不可得義>, 哲學研究, 第六輯, 高대 哲學會, 1980 年 參照.

73) 「爲衆生虛妄故成生死. 爲止生死故強說涅槃. 生死若除則涅槃亦息. 故華嚴云. 生死與涅槃二俱不可得.」(大正藏四二, 155 頁中).

74) 「若依二諦」에 있어서 「二諦」는 「三輪」으로 校正되어 있다(大正藏三六, 8 頁의 註 12). 그러나 이 「三輪」또한 「三論」의 誤記임이 들어난다. 즉, 金吞虛의 <懸吐譯解, 大方廣佛新華嚴經合論>四四冊, 77 頁에 「若依三論의 以妄乃俗諦하고」라고 한다. <演義鈔>卷第一에는, 「若依三論. 以世諦故有. 眞諦故空. 若以妄爲俗諦. 以眞爲眞諦. 則妄有眞空(大正藏三六, 8 頁中)이라고 三論의 體系를 明示한다. 또 吉藏의 <淨名玄論>卷第五의 「不滯於無. 不累於有. 故常著水消. 不滯於無. 故斷無見滅. 寂此諸邊. 故名中觀」(大正藏三八, 883 頁中)이란 體系는 「若依三論」을 받아들여지게 한다. 吉藏의 <大乘玄論>卷第四(大正藏四五, 55 頁中)參照.

有則雖無而有則。眞徹妄也。俗故無無。則雖有而無則。妄徹眞也。」⁷⁵⁾

三論에 依하여 妄은 俗, 眞은 眞諦 곧 眞妄으로 眞俗二諦를 삼는 것이다. 交徹이란 것은 俗을 卽하면서 眞이고, 眞을 卽하면서 俗인 緣故로 말하는 것이다. 曇影⁷⁶⁾이 말한 中道義는 아래와 같다.

‘眞諦인 故로 有가 없고, 俗諦인 故로 無가 없다. 眞인 故로 有가 없으니, 곧 비록 無이나 有이다. 俗인 故로 無가 없으니, 곧 비록 有이나 無이다. 비록 有이면서 無인 즉, 有에 不累한다. 또 비록 無이면서 有인 즉, 無에 不滯한다. 이러한 諸邊이 寂滅하는 故로 中道라고 名한다.’

澄觀은 上記文을 眞妄交徹義로 밝힌다. 즉, 「眞故無有則雖無而有」는 眞徹妄으로, 「俗故無無則雖有而無」는 妄徹眞으로 明示한다. 이러한 內容을 아래에 圖示하면,

眞	眞~	:	眞諦~無有	:	無有則雖無而有	中
妄(眞徹妄)	:		(不滯於無)			
交	妄~	:	俗諦~無無	:	無無則雖有而無	
徹(妄徹眞)	:		(不累於有)		道	

澄觀은 眞俗二諦를 眞妄으로 삼고, 三論系의 二諦相卽·中道方式을 眞妄의 交徹方式으로 解明한다. 이러한 思想에서 澄觀의 會通無礙한 態度를 보인다.

吉藏의 <淨名玄論>卷第五에,

「眞故無有。雖無而有。卽是不動眞際而建立諸法。俗故無無。雖有而無。卽是不壞假名而說實相。以不壞假名而說實相。雖曰假名。宛然實相。不動眞際。建立諸法。雖曰眞際。宛然諸法。以眞際宛然諸法。故不滯於

75) 大正藏三六, 8頁下.

76) <大乘玄論>卷第四에 什公의 音旨를 親承한 影公의 二諦中道構造가 明示된다. 卽, 「關中曇影法師, 注中論親承什公音旨. ……影公序二諦云, 眞諦故無有. 以俗諦故無無. 眞故無有. 雖無而有. 俗故無無. 雖有而無. 雖無而有. 不滯於無. 雖有而無. 不累於有. 不滯於無故. 斷無見滅. 不累於有故. 常著水消. 寂此諸邊故名爲中.」(大正藏四五, 55頁中).

無。諸法宛然實相。則不累於有。不累於有故不常。不滯於無故非斷。即中道也。」⁷⁷⁾

「眞故無有。雖無而有」는 곧 眞際를 不動하면서 諸法을 建立하는 것이다. 「俗故無無。雖有而無」는 假名을 不壞하면서 實相을 說하는 것이다.⁷⁸⁾ 假名을 不壞하면서 實相을 說하므로써, 비록 假名이라 하더라도 宛然히 實相이다. 眞際를 不動하면서 諸法을 建立하면, 비록 眞際라 하더라도 宛然히 諸法이다. 眞際가 宛然히 諸法임으로써 無에 不滯한다. 諸法이 宛然히 實相인 즉 有에 不累한다. 有에 不累한 故로 不常이고, 無에 不滯한 故로 非斷이니 곧 中道이다.

上記文을 圖示하면,

眞諦~無有: 雖無而有…不動眞際而建立諸法

非斷(不滯於無)…非無

俗諦~無無: 雖有而無…不壞假名而說實相

不常(不累於有)…非有

眞俗二諦의 相即, 中道方式이 眞際를 不動하고 假名을 不壞하는 方式임을 밝힌 것이다. 이러한 不動·不壞의 方式은 法藏의 華嚴體系에도 影響을 주게 된다. 즉, 「不異空之有」는 非有에 即한 有 곧 依他的 有이므로 「不動眞際建立諸法」義라 한다.⁷⁹⁾ 또한 「不異有之空」을 緣生의 空이라 하여 「不動緣生說實相法」義를 밝힌다.⁸⁰⁾

法藏의 <華嚴一乘教義分齊章>卷第四에도 不動·不壞의 方式이 提示된다. 即,

77) 大正藏三八, 88頁中. <大乘玄論>卷第四: 大正藏四五, 55頁中.

78) 「爾時釋提桓因作是念. 慧命須菩提. 其智甚深. 不壞假名. 而說諸法相. 佛知釋提桓因心所念. 語釋提桓因言. 如是如是. 憍尸迦. 須菩提其智甚深. 不壞假名. 而說諸法相. 釋提桓因白佛言. 世尊. 慧命須菩提. 云何不壞假名. 而說諸法相. 佛告釋提桓因. 色但假名. 須菩提亦不壞假名. 而說諸法相. 受想行識但假名. 須菩提不壞假名. 而說諸法相. 所以者何. 是諸法相. 無壞不壞故. 須菩提所說. 亦無壞不壞.」(<摩訶般若波羅蜜經>卷九, 散華品第二十九).

79) 法藏의 <華嚴五教章>: 大正藏四五, 500頁下.

80) 同藏四五, 500頁下.

「雖復隨緣成於染淨而恆不失自性清淨。只由不失自性清淨故。能隨緣成染淨也。猶如明鏡現於染淨。雖現染淨而恆不失鏡之明淨。只由不失鏡明淨故。方能現染淨之相。以現染淨知鏡明淨。以鏡明淨知現染淨。是故二義唯是一性。雖現淨法不增鏡明。雖現染法不污鏡淨。非直不污。亦乃由此反顯鏡之明淨。當知眞如道理亦爾。非直不動性淨成於染淨。亦乃由成染淨方顯性淨。非直不壞染淨明於性淨。亦乃由性淨故方成染淨。」⁸¹⁾

다시 隨緣해서 染淨을 이룬다 해도 恆常 自性清淨을 不失한다. 但只 自性清淨을 不失하는 緣由로 能히 隨緣해서 染淨을 이루는 것이다. 마치 明鏡이 染淨을 나타내는 것과 같으니, 染淨을 顯現하더라도 恆常 鏡의 明淨을 不失하는 것이다. 但只 鏡의 明淨을 不失하는 緣由로 能히 染淨의 相을 顯現한다. 染淨을 顯現하므로써 鏡의 明淨을 알게 된다. 또한 鏡의 明淨을 통하여 染淨의 顯現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런 故로 二義는 오직 一性인 것이다.⁸²⁾ 淨法을 顯現한다 해도 鏡의 明을 增加하지 않는다. 또 染法을 顯現한다 해도 鏡의 淨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다. 不汚할뿐만 아니라 또한 이로 말미암아 도리어 鏡의 明淨을 顯現한다. 眞如의 道理도 또한 이러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性淨을 不動하고 染淨을 이룰 뿐만아니라, 또한 染淨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性淨을 顯現한다. 染淨을 不壞하고 性淨을 밝힐 뿐만아니라, 또한 性淨에 緣由하는 故로 바야흐로 染淨을 이룬다.

거울을 例學하여 圓成의 不變과 隨緣義를 쉽게 解明한다. 이러한 解明은 染과 淨의 知體며, 二分的 根據에 빠지는 矛盾을 解決한 法藏體系의 特性을 보인다. 이러한 解脫方式은 澄觀에게도 影響을 준다.⁸³⁾ 「不動性淨成於染淨」·「不壞染淨明於性淨」의 不動不壞義는 華嚴의 一多

81) 同藏四五, 500 頁上~中.

82) 澄觀의 <華嚴經疏>卷第十四에 一性義를 든다. 卽, 「一性隨於種種則失眞諦. 種種隨於一性則壞俗諦. 今答云. 此二互相成立. 豈當相乖. 性非事外曾何乖乎種種. 種種性空. 曾何乖乎一性.」(大正藏三五, 604 頁中).

相即義에서도 나타난다.⁸⁴⁾

5. 結 言

(1) 如言의 取著(戲論, 分別)을 遠離하는 方式 및 緣起의 道理를 顯示하는 方式으로서 不異義는 無礙의 相即義로 提示된다. 不異에 緣由하여 二諦의 得存이 可能하고, 不異가 中道平等이라는 意味에서 不異의 相即·中道義가 明示된다. 不異義가 二諦中道の 成立脈絡으로 提示된다. 不異의 相即·中道義는 智顛의 思想에서 提示되므로, 中觀·三論思想밖에 不異의 中道義가 摸索되었음직 하다. 이러한 聯關은 唐代佛敎의 會通性을 提示한다. 不異義는 相奪의 無礙方式을 媒介함으로 有·空의 單就에는 그 絶義가 四句百非를 넘어서는 것이다. 不異義는 法藏의 華嚴學的展開(無二·交徹)로 相即·中道の 無礙方式을 여는 脈絡義로 提示된다.

(2) 立破의 無礙方式으로 是謂·非謂를 넘어서는 多様な 中道方式을 보인다. 二諦中道는 無二·交徹내지 交徹方式에 依한 踏融으로 三論과 다른 獨創性을 나타 낸다. 또한 三性의 眞妄交徹方式을 통한 中道義는 他에 類例가 없는 體系라 할것이다.

(3) 三性의 六義를 들어 三性一際·無二의 交徹方式을 展開함에, 「不壞末而常本」·「不動本而常末」義는 「不動緣生說實相法」·「不動眞際建立諸法」義와 相應한다. 이 點은 三論系를 중심으로 般若系의 交涉關

83) 澄觀의 <華嚴經疏>卷第十四에, 「若法相宗唯以本識爲鏡, 今依法性宗亦以如來藏性而爲明鏡. …… 合云業者. 謂善惡等三性者. 通性及相. 謂此業體以無性之法. 而爲其性. 不失業之相. 而爲其性. 由無性故能成業果. 由不壞相方顯眞空. 中論云. 雖空亦不斷. 雖有而不常. 業界亦不失. 是名佛所說. 不失業果. 方顯中道. 又如鏡現像. 非直不汚鏡. 淨亦乃由此顯鏡喻如來藏.」(大正藏三五, 607 頁下) 引證으로 <中論>觀業品第十七, 第 20 偈를 든다.

84) 杜順說 智嚴撰의 <十玄門>에, 「如一即多而不動一相. 如此一相亦非謂一. 多亦如是. 雖多即一而不壞多相. 亦非情謂多.」(大正藏四五, 514 頁下).

係를 提示한다. 有無의 無二, 眞俗의 離合無礙에 의한 中道實現은 交徹方式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다. 法藏의 眞妄交徹方式이 三性에 基한 組織的인 構造에 依한 것이 그 特色이라면, 澄觀의 方式은 法藏의 思想을 受容하면서 中觀(印·中의)의 影響을 具體的으로 提示하는데 그 特色이 보인다. 後者의 경우, 中觀思想에 대한 새로운 理解를 提示한다. 곧 中觀·三論系의 相即·中道義를 交徹方式으로 解明한다. 이 點은 法藏의 體系보다 더 三論系에 接近하며 「不動眞際而建立諸法」·「不壞假名而說實相」義를 밝히려는 試圖로도 보인다. 法藏은 眞妄의 始源을 分析·取證하는 등 論理的인 知解를 所有하는 方式을 취하지 않는 것이다. 不變·隨緣義에 있어서 染淨을 이루어도 自性淸淨을 不失하고, 自性淸淨을 不失하는 緣由로 染淨을 이루는 轉悟方式을 밝힌다. 또한 比喻로서 染法의 顯現은 鏡의 淨을 不汚할뿐 아니라 鏡의 明淨을 反顯하는 道理를 明示한다. 곧 不增·不減·不動不壞등의 眞理를 밝히므로써 不變隨緣등 義를 圓熟하게 提示하는 法藏의 轉悟方式은 無礙方式이라 할 것이다.

以上으로 法藏의 無礙方式은 不異·中道·交徹의 無二·會通·無礙義에 基한 轉悟方式으로 提示된다.